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레고 테이블 DIY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자 두뇌 계발에도 좋은 레고. 최근에는 어른들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레고 조각들을 여기저기 흘리지 않아 정리에 대한 걱정이 없고,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을 보관할 수 있어 안성맞춤인 레고 테이블 만들기.

글 이미리 컬러디자인센터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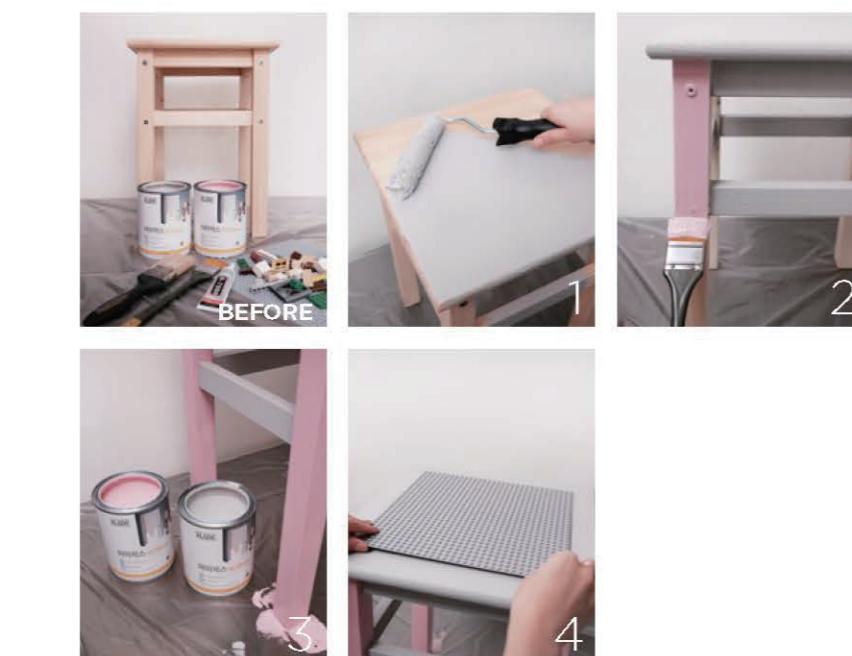


HOW TO

STEP 1 아이lsx 로즈 패스텔즈(SH S 1030-R20B) 와 실버 그레이(SH S 2500-N) 페인트를 준비해 스타일의 넓은 면적부터 롤러를 이용해 페인팅한다. **2** 한 가지 컬러로만 페인팅 할 경우 자칫 멋있해 보일 수 있어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하고, 면적이 작은 부분은 브러시로 칠해 준다. **3** 페인팅의 한 곳 차이를 결정 짓는 것이 꼼꼼한 마무리. 다리 아래까지 꼼꼼하게 발라준다. **4** 페인트가 완전 건조되면 접착제를 이용해 레고 조립판을 스타일 위에 부착한다.

AFTER

레고 조립판 위에 레고를 조립하면 정리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나만의 특별한 레고 테이블이 완성된다.



Color Magazine

vol.31

Paint is SAMHWA
Color Therapy 2018

IRIS PURPLE
SH S 2050-R60B

Color Nuance of the Year 2018

Grounded Delight

Monthly Color Points

January Color 'Otter Brown'

February Color 'Nature Whisper'

COLOR+ PROJECT

가구와 작품이 함께하는 컬러 스타일링



SAMHWA

S/C/D
Samwha Color Design Center

NCS
NATIONAL COLOUR SYSTEM

Color Nuance of the Year 2018

'Grounded Delight'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가 선정한 2018 올해의 컬러 뉘앙스는 '그라운디드 딜라이트(Grounded Delight : 대지의 환희)'이다. 컬러디자인센터는 대지의 포용과 따뜻함, 자유로움을 표현한 컬러 뉘앙스로 그라운디드 딜라이트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다섯 가지 컬러를 제안한다.

컬러디자인센터의 컬러 뉘앙스는 일반적인 '올해의 컬러'와는 다른 개념으로, 단순히 하나의 유행 색을 지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대의 감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컬러 뉘앙스라고 할 수 있다. 인테리어, 자동차, 가전, IT산업 등 컬러디자인 관련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컬러의 흐름을 말한다. 3개년 글로벌 리서치 및 분석 결과의 컬러 변화 추이에서 중요성과 영향력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색상 계열을 찾는다. 컬러디자인센터는 도시화와 기술혁신의 가속에 따라 자연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소비자 감성이 보태니컬 디자인을 넘어 원초적 자연에 대한 탐험적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거친 대자연의 모티브를 현대적이고 도시적 감성으로 재해석 하는 과정에서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그라운디드 딜라이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컬러로 세피아 모브(Sepia Mauve), 시나몬 시럽(Cinnamon Syrup), 애시드 브라운(Acid Brown), 테디 브라운(Teddy Brown), 하비스트 문(Harvest Moon)을 제안했다. 이 컬러 구성은 대지의 포용력과 따뜻함, 개방성, 자유로움, 창의적 유산 등을 표현한다.

컬러 디자인센터 김향란 센터장은 "컬러 뉘앙스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 도출한 CMF 비전에 기반하고 있으며, 컬러 디자인에 있어 감성 표현에 중요한 뉘앙스를 제안하기 때문에 다른 트렌드 컬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매년 미래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따른 CMF VISION을 발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컬러디자인센터 홈페이지(scd.sp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epia Mauve
SH S 7020-R80B

Cinnamon Syrup
SH S 7020-Y80R

Acid Brown
SH S 4050-Y60R

Teddy Brown
SH S 4020-Y30R

Harvest Moon
SH S 0550-Y20R

January Color ‘Otter Brown’

백야 속 하늘을 물들인 이국적인 브라운 (SH S 7005-R20B)

최근 명상과 사색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 예술가들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오감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곧 익숙함보다는 신비로움과 새로움으로 표현될 때가 많다.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자극은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는 경험을 전함과 동시에 진정한 고요함과 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니즈로 인해 이번 시즌 컬러는 익숙한 듯하지만 차분하고 은은하게 신비로운 느낌의 컬러 팔레트로 구성된다. 포근하고 안정된 모노톤을 이끄는 베이직한 컬러들과 퍼플의 다크한 브라운을 메인으로 안정적이고 코지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추운 남극 지방의 동지 무렵 계속되는 백야의 하늘과 같은 이국적인 컬러를 연상시킨다. 여기에 리빙 소품으로 럭셔리한 미니멀리즘을 표현하는 스톤, 골드, 실버, 메탈릭과 매칭하거나 따뜻한 골드 컬러를 포인트로 구성하여 새로운 감성의 팔레트를 완성한다. 침실에는 천연의 코튼 소재와 절제된 장식으로 미니멀스타일을 극대화시켜 포근하면서도 이지적인 이미지로 이중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SH S 7005-R20B

SH S 0502-R

SH S 4005-R50B

SH S 0502-R50B

SH S 2060-Y20R

February Color ‘Nature Whisper’

포근함과 전원적 감성의 그린 (SH S 2010-G80Y)

누구나 도시를 벗어나 고요하고 전원적인 삶을 꿈꾸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머무른다. 시티 라이프 안에서 전원적인 감성과 자연의 포근함을 그리는 사람들은 대지의 그린과 옐로우에 애정을 보이며, 도시의 세련된 감각과 전원의 따뜻한 매력이 더해진 어반 컬러 팔레트를 선호한다. 여기에 도시에서의 삶은, 공간은 더욱 작아지고 기술은 더욱 진화하여 가구와 가전 또한 심플하고 모던해진 것이 특징이다. 최근까지 북유럽 라이프와 미니멀 라이프가 트렌드를 이끌며 컬러 또한 유사 레인지 안에서 차분하고 심플해진 것이 이로 인한 특징으로 보인다. 나아가 자연에 대한 예찬은 자연의 리얼 소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우드, 석재, 유리와 세라믹 같은 자연 소재의 리얼리티를 인테리어 효과로 사용하고, 절제된 컬러감의 패브릭과 소품으로 작지만 고급스럽고 개성 있는 공간을 연출해낸다. 여기에 리얼 식물의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하면 공간에 생기를 넣어준다. 배색에 따라 차분하게 또는 생기 있게 연출할 수 있으며, 1인 가구부터 대가족의 공간까지도 모두 다 잘 어울리는 배색으로 활용도가 높다. 옐로우와 그린 컬러를 통해 새로운 봄의 시작을 공간에 담아보자. **S**



SH S 2010-G80Y

SH S 4040-B60G

SH S 5030-G90Y

SH S 1502-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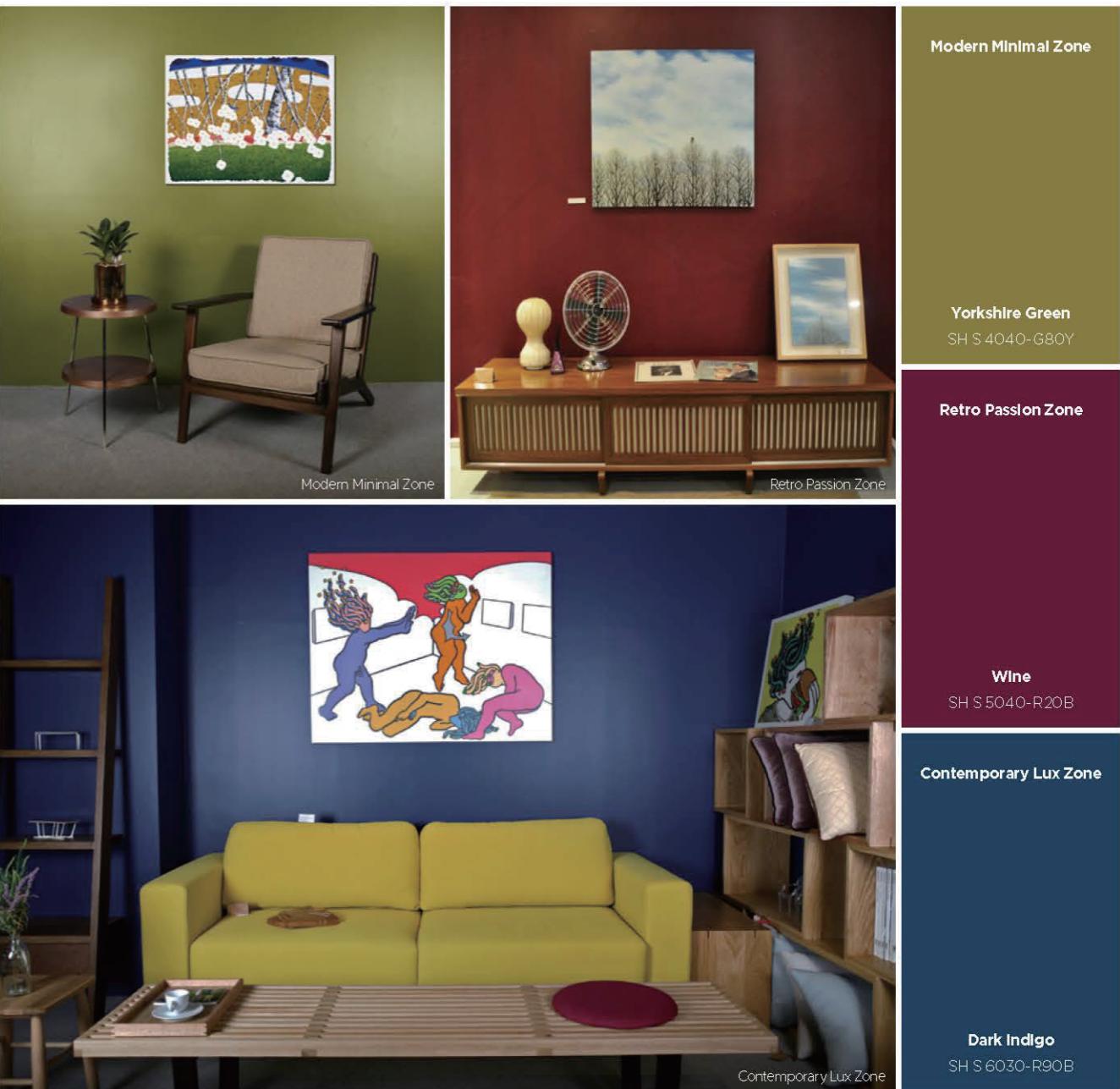
SH S 0540-G80Y

COLOR+ PROJECT

생활을 예술로, 가구와 작품이 함께하는 컬러 스타일링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2017년 한 해 동안 컬러로 스타일링한 인테리어 공간을 제안하는 ‘컬러 플러스 프로젝트(COLOR+ PROJECT)’를 진행했다.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와 감성디자인가구 ‘퍼니매스’, 현대 예술의 플랫폼 ‘키스갤러리’가 공동 진행한 ‘컬러 플러스 프로젝트’는 ‘생활을 예술로’를 표방하며, 컬러를 중심으로 리빙과 아트가 접목된 공간을 선보이는 문화 콘텐츠 콜라보레이션이다. 삼화페인트의 ‘컬러 스타일링’과 퍼니매스의 가구, 키스갤러리의 예술작품을 한 공간에서 보여주는 개념으로, 컬러와 가구, 예술작품 배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컬러디자인센터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8회의 전시를 기획했다. 민율 작가의 <나무 끝 작은 의자 위에서> 展을 시작으로, 지하 작가의 <다이얼로그> 展, 최나리 작가의 <Every Moment> 展, 주은희 작가의 <빛의 양상들> 展, 류수인 작가의 <은은한 기억> 展, 양홍수 작가의 <숲, 푸른 꿈을 꾸다> 展, 임은경 작가의 <나무 그늘> 展, 김태수 작가의 <파랑새의 여행> 展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퍼니매스 매장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삼화페인트의 친환경 프리미엄 페인트 아토프리 ‘더클래시’ 제품으로 인테리어를



스타일링했다. 요크셔 그린(Yorkshire Green, SH S 4040-G80Y) 컬러의 ‘모던 미니멀 존(Modern Minimal Zone)’, 다크 인디고(Dark Indigo, SH S 6030-R90B) 컬러의 ‘컨템퍼러리 럭스 존(Contemporary Lux Zone)’, 와인(Wine, SH S 5040-R20B) 컬러의 ‘레트로 패션 존(Retro Passion Zone)’ 등 3개의 콘셉트로 구분했다. ‘모던 미니멀 존’에서는 간결하면서도 내추럴한 분위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원목과 패브릭 소재의 가구를 활용해 클래식과 빈티지 감성이 가미된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을 제안했다. ‘컨템퍼러리 럭스 존’에서는 자신만의 창의적 공간을 원하는 트렌드 세터들을 위해 감각적인 디자인의 가구를 다양한 구성으로 매치할 것을 제안했다. ‘레트로 패션 존’에서는 새로운 감성과 개성 강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레트로 스타일 가구와 소품이 자연스럽게 조화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지난 1년간 진행했던 2017 컬러 플러스 프로젝트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인테리어 스타일링의 부담스러움을 최소화하고, 컬러를 중심으로 리빙과 아트를 접목하여 몇 개의 가구와 작품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공간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관련 업계 및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S**

CULTURE CLUB

주위를 둘러보면 일상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가득하다.
이번 달에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전시, 공연,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추억·긍지·용기를 향한 도전
〈모래시계〉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공감의 메시지
〈빨래〉



러시아가 사랑한 프랑스 미술
〈예르미타시 박물관 展〉

1995년 당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가 뮤지컬 무대에 올랐다. 작품은 유신정권 반대 학생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격변의 현대사 속 세 주인공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엇갈린 운명과 선택을 클래식과 록을 넘나드는 풍성한 음악으로 표현해냈다.

기간 2017년 12월 5일 ~ 2018년 2월 11일
장소 서울시 중구 총무아트센터 대극장
초대일 2018년 2월 1일(목) 8시

2005년 초연 이후 13년 동안 공연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로 자리매김한 뮤지컬 <빨래>가 돌아왔다. <빨래>는 서울의 달동네를 배경으로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살이와 사랑을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기간 2017년 03. 09 ~ OPEN RUN
장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1관
초대일 2018년 2월 7일(수) 8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러시아 예르미타시박물관과 함께 특별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계몽군주 예카테리나 2세가 수집한 17~18세기 프랑스 회화부터 20세기 초 러시아 기업가들이 구입한 인상주의 회화에 이르기까지 89건의 프랑스 작품들을 선보인다.

기간 2017년 12월 19일 ~ 2018년 4월 15일
장소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초대일 전시 기간과 동일

삼화人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첨을 통해 뮤지컬 <모래시계>, 뮤지컬 <빨래>, 전시 <예르미타시 박물관 展> 티켓(1인 2장)을 선물합니다. 응모는 1월 26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1월 29일입니다.

* 응모방법 : speople@spi.co.kr로 신청해주세요.

S QUIZ

사진과 관계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맞는 내용끼리 연결해보세요. (예 : A-①, B-②)
정답을 speople@spi.co.kr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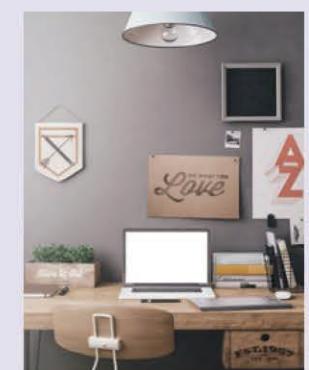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가 선정한 2018 올해의 컬러 뉴앙스는 '그라운디드 딜라이트'이다. 컬러디자인센터는 대지의 포용과 따뜻함, 자유로움을 표현한 컬러 뉴앙스로 그라운디드 딜라이트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컬러로 세피아 모브, 시나몬 시럽, 애시드 브라운, 테디 브라운, 하비스트 문을 제안했다.

A 1



오래된 것 특유의 멋스러움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언제나 익숙한 매력을 잃지 않는 그레이로 홈오피스를 꾸며보자. 시멘트 데코를 활용하여 편안한 카페 느낌을 내거나, 아이러스 칠판·자석 페인트를 이용해 스케줄링 가능한 퍼스널 공간으로 표현하는 등 최근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

B 2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당첨자

김순정 경기도 안산시 / 김은애 경기도 부천시 / 문세연 경기도 파주시 / 이민준 전라북도 남원시 / 이주연 경상북도 칠곡군 / 정진성 부산시 부산진구 / 조광희 서울시 동대문구 / 조봉진 전라남도 여수시 / 지아영 경기도 고양시 / 최주영 광주광역시 북구

*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A - ① (크래프트 클라이맥스전) B - ② (Romantic Modern)

마켓기획팀
재무팀
컬러디자인센터

박철희 과장
김현정 과장
이미리 대리

연구혁신그룹
삼화로지텍
SM2네트웍스

김필영 선임연구원
임형빈 차장
허현아 대리

삼화앤피플 사내기자단